

전남도, 전국 최초로 한우 송아지브랜드사업 출범식

첫 경매 61마리 출품돼 최고가 500만원 낙찰

전남도는 한·미 등 FTA 체결로 최고기 수입 증가 및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워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한우 송아지 브랜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한우 송아지브랜드는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한국농축개발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선발기준을 통해 면밀히 심사해 전남민의 한우 송아지 브랜드로 육성·관리해 판매 한우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10억원(국비 3억2000만원, 시·군비 6억 8000만원)을 들여 1차년도 사업

상 시·군으로 선정된 강진군과 고흥군의 우량 암소(혈통등록우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역 축협에서 시범추진하고 내년부터는 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축개량(선형심사, 능력검사), 전산 D/B 구축, 유전자 검사, 고능력 정액 공급 송아지 브랜드 관리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선발은 축협과 한국농축개발협회에서 혈통등록된 암소 중 D/B를 통해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 고능력 정액을 공급해 생산된 송아지를 진자확인 등을 거쳐 최종 브랜드명을 부여한 후 각 지역 혈통등록우 경매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체계다.

지난 19일 강진 및 완도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전남 한우 송아지 브랜드 첫 전자경매 시장에는 전남 으뜸송아지 61마리가 출품됐으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보다 170만원 높은 최고가 500만원에 낙찰됐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의 우수한 한우를 시·군 단위로 집중 개량해 고능력 축군으로 조성하고, 생산된 우량 송아지는 브랜드화하는 등 전남 한우 명품화를 통한 도내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우 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위생·안전성까지 높여 전남 한우 차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김기태 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업 불편 해소해야"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한 울촌산단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순천시와 광양시 간 7년간 소송 끝에 지난 2008년 합법재판소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한 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 규정에 따라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자체 간 행정구역 관할 다름은 경계에 따른 자치 영역에 행정력과 지방세 등 세금부과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그간 전남도는 분쟁조정 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했지만 실패했고, 본 의원도 수없이 지자체 간 조정을 촉구했지만 십 수 년째 손 놓고 있고 해결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자율조정 실패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큰 경우 도지사가 경제환경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합의 하에 하고 합의도출 실패 시 도지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계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액이 지자체 간 유불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의 작은 이익을 넘어 광양민권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주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2.6% 인상·직종별 특수업무수당 신설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0일 오후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기본급 2.6% 및 근속수당 25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고, 정액급식비를 현행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과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교무실무사 등 직종별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했다.

이번 임금협약에 따라 이달 안에 16억8900여 만원을 소급 적용하고 2019년 1월부터 7억26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4억1600여 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임금협약 대상자는 조리사, 과학실무사, 방과후전담, 초등스포츠강사, 환경미화원 등 학교비정규직 51개 직종 3988명이다.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노사 양측이 소통을 통해 임금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광주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 주요 관광지 34곳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광주시는 20일 주요 관광지 34곳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완료돼 누구나 무료 기가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역에서는 누구나

'KOREA Free SSID'에 접속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주시에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 총 577곳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내버전 전체 1000여대에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동구, 성매매 집결지 정비 지역민관협의체 회의

광주 동구는 지난 19일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인동 복합문화공간 '감빛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총장동 주민대표, 여성인권단체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 실태보고 ▲도시재생적 접근방향을 논의 ▲집결지 폐쇄 실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인권마을 공모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정비방안이 언급됐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인근 집결지 걸기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 공직기강 확립 위해 특별감찰 실시

광주 서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분위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찰에 나섰다.

이번 특별감찰기간에는 감사담당관 직인 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내년 1월 4일까지 분청 및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감찰/비노출 활동을 병행 집중 감찰한다.

주요 감찰사항은 갑질, 부적절 언행, 업무의 부적절 사항, 복무?보안? 안전관리 준수 여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 유지 실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비리,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이용 제공 행위 등이다.

남구 "다목적체육관 운영자 공개모집합니다"

광주 남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남구 다목적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도맡을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남구는 20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운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6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류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광주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법인·기관이면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 전문성, 장비, 인력을 갖춘 단체와 법인 기관 등이다.

북구, 연말 각종 업무평가 수상 잇따라

광주 북구가 한해를 결산하는 연말 각종 업무평가에서 결실을 맺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방위업무', '정보화 업무추진', '공중위생업무'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민방위업무 평가'는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평가했으며, 북구는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11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북구는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4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이뤄진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사업 활성화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평가한 '공중위생업무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10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

광산구, 문화재활용사업 수행단체 워크숍

19일 광주 광산구가 동명동 지음책방에서 '문화재활용사업 수행단체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산구 문화재활용사업 8개 수행단체 관계자가 참가한 이날 워크숍은 수행단체 간 정보교류와 올해 사업 결과 피드백, 내년 사업 내용 검토 등을 내용으로 협업과 네트워킹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임형택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합평군공고 제2018-1070호

합평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합평군기각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8. 12. 21.

합 평 군 수

- 합평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 위치: 전남합평군 합평읍기각리1082번지 일원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 변경사유: 전기공급설비 구역축소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용도 환원
 - 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당초 57,332㎡ → 변경 51,222㎡(감) 6,110㎡
 - ※ 변경사유: 기결정된 군계획시설 구역 일부(사유자)를 재계획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도모
- 주민공람 내용: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 관계도시: '계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공람기간: 2018년 12월 21일 ~ 2019년 1월 3일(14일간)
- 공람장소: 합평군청 전략경영과, 합평읍사무소
-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전략경영과(061-320-1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